

『전쟁론』 1편 1장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

전쟁의 무제한성(Entgrenzung)과 제한성(Begrenzung)을 중심으로

김 태 현*

1. 머리말
2. 『전쟁론』 1편 1장 이해를 위한 배경 : 집필과정과 논리구조
3. 1편 1장에 대한 해석
4. 결 론

1. 머리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만큼 논란이 많이 되었던 책도 없다.¹⁾ 전쟁론은 저자인 클라우제비츠가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이다.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저자가 사망함으로써 20여 년간의 집필 기간동안 혼재된 저자의 관점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전쟁론은 클라우제비츠가 애초부터 ‘전체’에 대한 구상없이 집필하기 시작해서 후기에 가서야 개별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일관된 관점 하에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조교수, kimtaehyun305@yahoo.com

1)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85.

집대성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승화시키려 했다. 이 때문에 아롱(Raymond Aron)은 전쟁론이 마치 “마지막 결론이 누락된 범죄 소설”처럼 독자들에게 의문을 품게 만들며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²⁾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에 대한 사후 평가와 연구들은 동의, 비판, 완전한 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³⁾ 크레벨트(Martin van Creveld)와 키건(John Keegan)과 같은 학자들의 혹평이 있는가 하면, 브로디(Bernard Brodie)처럼 “전쟁론은 전쟁에 관해 가장 위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유일한 위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극찬주의자들도 있다.⁴⁾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논쟁이 거듭되면 될수록 전쟁론의 생명력은 오히려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⁵⁾

문제는 전쟁론이 인용은 많이 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드물다는 점이다.⁶⁾ 전쟁론은 논리자체의 복잡성, 주장의 상충성과 함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전쟁론을 접하는 독자들이 시련을 겪게된다.⁷⁾ 그것은 비단 책의 서술방식뿐만 아니라 주요 분석대상이 되는 나폴레옹 전쟁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하여 ‘전체(Ganze)와 부분(Teile)의 통합적 고찰’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독특한 분석방법도 해석의 난해함을 증가시킨다.⁸⁾ 이 때문에 오랫동안 전쟁을 연구하는 연구

2) Raymond Aron, *Clausewitz: Den Krieg Denken* (Berlin, 1980), p.19.

3) Christoph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Rheinisch-Westfae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Institut fuer Politische Wissenschaft, 2003. December), p.2.

4) Bernard Brodie, “The Continuing Relevance of On War”, in Carl von Clausewitz, *On War*(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53.

5)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85.

6) Beatrice Heuser, *Reading Clausewitz* (London: Pimlico, 2002).

7) Jon Tetsuro Sumida, *Decoding Clausewitz: A New Approach to On War* (Kansas, 2008), p.181.

8)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Ferdinand Duellmiller Verlag, 1966), p.89.

자들도 전쟁론을 자신들의 논리에 맞는 문구를 인용은 많이 해왔지만 전쟁론의 논리구조를 전체적으로 통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⁹⁾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전쟁론』을 연구하는 해외연구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작 전쟁론으로부터 전략적 통찰력을 얻고자 입문하는 한국의 국내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국내에도 이미 전쟁론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종학, 허남성의 분석논문들은 클라우제비츠가 잘 소개되지 않은 시기의 척박한 연구 환경을 극복하면서 전쟁론을 국내에 소개했던 기념비적인 연구서들이다.¹⁰⁾ 이와 더불어 박창희의 번역서는 전쟁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¹¹⁾ 이 뿐만 아니라 전쟁론에 대한 양질의 다양한 번역서들도 전쟁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¹²⁾ 또한 한반도평화와 전쟁을 사례로 이론적 접목을 시도하는 노력들도 전쟁론의 학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¹³⁾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론 자체의 해제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쟁론의 해석에 일관된 관점을 제공하는 1편 1장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제가 절실하나 최근의 해외 연구 성과들을 반영한 연구물은 부족한 실정이다. 1편 1장은 클라우제비츠 자신이 완성했다고 자부하는 유일한 부분으로서 전쟁론 전체의 기본적인 논리구조와 관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9) Heuser, *Reading Clausewitz*.

10) 이종학, 『클라우제비츠와 전쟁론』(주류성, 2004); 이종학 편저,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충남대출판부, 2010); 이종학,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군사논평』 제409호(2011.2); 허남성,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3위1체론 소고,” 『군사』 제57호(2005. 12).

11) 박창희 역, 마이클 한델 저, 『클라우제비츠, 손자, 조미니』(평단출판사, 2000).

12) 류제승, 『전쟁론』(서울: 책세상, 1998); 김만수, 『전쟁론』(갈무리, 2006).

13) 강진석, 『클라우제비츠와 한반도 평화와 전쟁』(동인, 2013).

한다. 전쟁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전쟁은 카멜레온”, “경이로운 삼위일체” 등의 명제들은 1편 1장을 구성하고 있는 28개의 명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편 1장은 28개 명제가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어 해독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전쟁론의 독자들은 28개 명제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쟁론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으로서 1편 1장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하고자 한 ‘전쟁의 본질’과 관련한 논리구조들을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 성과를 비판하여 새로운 해석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에 난해하게 해석되어 왔던 관점을 쉽게 풀어 설명하여 전쟁론 입문의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전쟁론에 내재된 이론적 쟁점과 전쟁의 본질에 대한 보다 본원적이고 심도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견지하였다. 첫째, 역사(history)와 이론(theory)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었다. 전쟁론은 나폴레옹전쟁을 모델로 분석한 정치군사서적으로서 전쟁론에 제시된 주요 논점들을 나폴레옹 전쟁의 주요전역들과 비교하여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테(Andreas Herberg-rothe)가 제시한 ‘세 가지 전역’과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이라는 논점을 기반으로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전역은 예나/아우어슈테트(jena/auerstedt, 1806), 모스크바(moscow, 1812), 워털루(waterloo, 1815)로서 각각 전쟁의 무제한성(절대전쟁, absolute war)과 전쟁의 제한성(현실전쟁, real war)과 관계있다. 둘째, ‘전체(whole)’와 ‘부분(part)’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은 각 명제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고찰하는 구조적, 체계적인 이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별명제로 부터 전쟁분석을 출발했던 클라우제비츠의 ‘부분’적인 노력이 전쟁이론이라는 ‘전체’ 노력으로 승화되어 가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전역’에 대한 저자의 논점 변화가 전쟁론 전반에 혼재되어 있으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미완성으로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집필과정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1편 1장은 전쟁론 전체에 일관된 관점을 제공하는 일종의 ‘분석의 틀 (framework)’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조명한다.

논문의 구성으로서 2장은 전쟁론의 집필과정과 1편 1장의 의미를 밝히고, 3장에서는 1편 1장을 구성하는 28개의 개별명제들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특히 3장에서는 대질문인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1편 1장을 구성하고 있는 28개 개별 명제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국외연구자들의 경향과 전쟁론 본문의 대조비교를 통해 1편1장의 정신을 최대한 ‘쉬운 말’로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클라우제비츠의 독일어 원서인 vom Kriege(1966), 원서에 가까운 영어번역본인 파렛(Peter Paret)의 On War(1976), 그리고 한국어번역본인 류제승의 『전쟁론』(2002)을 교차 비교자료로 인용하였다.

2. 『전쟁론』 1편 1장 이해를 위한 배경 : 집필과정과 논리구조

가. 전쟁론의 집필 과정과 1편 1장의 의미

전쟁론은 클라우제비츠가 1810년 이후부터 1831년 죽기 전까지 집필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¹⁴⁾ 그의 사후인 1832년 아내 마리(Marie von Clausewitz)가 출판하였다. 총 8편(1편: 전쟁의 본질, 2편: 전쟁이론, 3편: 전략, 4편: 전투, 5편: 전투력, 6편: 방어, 7편: 공격, 8편: 전쟁계획)으로 구성된 전쟁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집필과정을 추적해야한다. 왜냐하면 전쟁론은 애초에 저자가 출간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작성되었던 ‘논문 모음집’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21년간의 집필과정에서 전쟁관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쟁론의 분석대상은 1806-1815년간 수행되었던 나폴레옹 전쟁(Napoleonic War)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집필과정은 ‘나폴레옹의 유럽 세력균형체계의 파괴시도’와 관련된다.¹⁵⁾ 주요 분석대상은 군사적 의미로서의 ‘전투’가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인간적 삶을 포괄하는 ‘전쟁전체(den ganzen Krieg)’로서의 전쟁현상이었다.¹⁶⁾ 클라우제비츠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전쟁론 논리를 형성하는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나폴레옹이 수행했던 주요 전역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1806년 나폴레옹군-프로이센의 예나 / 아우어슈테트, 1812년 나폴레옹군-러시아군의 모스

14) Clausewitz, *On War*, p.65.

15) Uwe Hartmann, *Carl von Clausewitz: Erkenntnis, Bildung, Generalstabsausbildung* (Muenchen, 1998), p.17.

16) Lennart Souchen, *Die Hauptlineament seiner Ansicht vom Kriege, Clausewitz-Information. 3/2007*(Hamburg: Fue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2007), p.24.

크바 전역, 그리고 1815년 나폴레옹군-영국 / 프로이센군의 워털루 전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¹⁷⁾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분석에 대한 저술기간은 분석대상의 역사적 발생기간, 집필여건, 전쟁관의 변화에 따라 크게 4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저술기간(1810~1812)은 클라우제비츠가 베를린 전쟁학교 교관시절 전쟁론의 기초가 되는 초기분석 작업을 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당시 주된 분석대상은 1806년 예나 전역이었다. 2차 저술기간(1816~1818)은 모스크바(1812) 전역과 워털루(1815) 전역 직후에 코블렌츠에 근무하던 시기로서 주된 연구 관심은 앞선 두 개의 전역에 관한 것이었다. 3차 저술기간은 (1818~1827) 예나, 모스크바, 워털루 전역 등 세 개 전역에 대해 개별 주제별로 집중 분석을 하면서도 전쟁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식별하고자 노력했던 이른바 ‘이론화’ 과정을 병행했던 기간이었다. 4차 저술기간(1827~1830)은 그간의 전쟁분석을 통해 도출한 ‘전쟁이론’을 바탕으로 전쟁론 후반부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1편1장을 완성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를 통틀어서도 클라우제비츠는 1편-6편까지에 대해서 개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결국에는 ‘하나로서 전체’를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다.

17) Andreas Herberg-Rothe, *Clausewitz und Napoleon: Jena, Moskau, Waterloo* (Hamburg: Fue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Clausewitz-Information 1/2006), pp.9~17.

〈표 1〉 클라우제비치의 연대기별 전쟁론 집필과정

연도	구분	집필과정
1806년		예나/아우어슈테트(Jena/Auerstedt) 전역
1808년		스페인 내전(Spain)
1810-1812년	1차 집필기간	Marie 출간사 - 베를린 전쟁학교 교관 - 논문집필(1812년): 전쟁론의 기초
1812년		스페인 내전 종결
1812년		모스크바(Moscow) 전역
1815년		워털루(Waterloo) 전역
1816-1818년	2차 집필기간	Marie 출간사 - 코블렌쯔 근무 - 논문 작성
1816-1818년 (추정)		클라우제비치의 메모 - 형식면에서 완성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집필과정을 설명
1818년(추정)		클라우제비치의 메모 - 전체적인 체계와 설계없는 개별주제에 대한 집필과정을 설명함
1818-1827년	3차 집필기간	Marie 출간사 - 베를린 전쟁학교 교장 - 집중적인 집필활동 - 최근 전쟁경험을 보충
1827년		클라우제비치의 메모: 개작 의도와 집필경과 - 1편-6편 전반적으로 개작해야할 거친 원고에 불과함 * 필수적 기본관점으로 개작: 두 가지 유형의 전쟁, 전쟁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행하는 정치의 연속 * 8편에 주로 해당되지만, 1편도 이 기본관점에 의한 논리전개 필요 - 7편: 장별 초고는 완성되어 있으며, 앞의 기본 관점으로 편집되어야 함 - 8편: 자료연구에 불과한 상태, 7편 연구 후 8편 완성작업에 착수할 수 있음. 두 가지 유형의 전쟁에 관한 관점 적용 - 7-8편 완성 후 1-6편 개작에 착수예정
1827-1830년 봄	4차 집필기간	Marie 출간사 - 포병부대 전출로 인한 집필 중단 - 원고정리후 주제별 포장/봉인: 각 원고봉투 전면예 주제명 기재 / 보관
1830년(추정)		클라우제비치의 메모: 개작 의도와 집필경과 - 6편은 단순한 시안에 불과: 원고 전체 개작, 또는 다른 방법 선택필요 - 전쟁의 주요특징은 일관성있는 산물 - 7편: 공격, 8편: 전쟁계획(정치, 인간) - 1편 1장은 전체원고중 완성했다고 간주하는 유일한 부분: 전체 내용에 대해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1831. 11. 16		사망
1832. 6. 30.		전쟁론 발간

출처: Clausewitz, On War, p.61, pp.65~57, pp.69~71.

1차 저술기간인 1810~1812년 클라우제비츠는 전쟁학교 교관 생활기간에 전쟁론의 기초가 된 작업을 시작하였다.¹⁸⁾ 이 시기는 예나 전역 이후 프로이센에 있어서 평화의 시기이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주요 분석대상은 1806년의 예나 전역과 1808년 시작된 스페인 내전(Spain Civil War)이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전쟁분석을 통해 형성된 ‘초기 클라우제비츠(early Clausewitz)’의 핵심논점은 나폴레옹군의 승리와 프로이센군의 패배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¹⁹⁾ 1812년 나폴레옹군대가 러시아 모스크바 원정을 수행하면서 클라우제비츠의 집필활동도 잠시 중단되었다. 클라우제비츠는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여 1812년의 모스크바원정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의 관점변화가 전쟁관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12년 나폴레옹군의 모스크바원정 실패에 이어 1815년 워털루 전투의 패전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집필기간(1816-1818) 클라우제비츠의 분석대상은 모스크바 전역(1812)과 워털루 전역(1815)이었다. 이 두 전쟁에 직접 참전한 후 프로이센으로 복귀한 클라우제비츠는 1816년 코블렌츠에서 다시 연구를 재개하여 앞선 4년 간의 전역을 분석하였다. “후기 클라우제비츠(later Clausewitz)”라 부를 수 있는 모스크바 전역과 워털루 전역 등 두 전쟁형태에 대한 분석의 초점은 나폴레옹군대의 전쟁 실패 요인이었다.²⁰⁾ 초기 클라우제비츠가 나폴레옹군의 승리

18) Marie von Clausewitz, “By Marie von Clausewitz to the Posthumous Edition of her Husband’s Works, including on War”, in: Carl von Clausewitz, *On War*, pp.65~57

19) Andreas Herberg-Rothe, *Das Raetsel Clausewit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im Widerstreit* (Muenchen, 2001).

20) Herberg-Rothe, *Das Raetsel Clausewit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im Widerstreit*.

요인에 주안을 두었다면 후기 클라우제비츠는 반대로 실패원인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클라우제비츠가 초기 클라우제비츠와 후기 클라우제비츠를 포괄하는 전쟁이론화를 시도하겠다는 각오를 가졌다는 점이다. 1818년 클라우제비츠의 메모에 의하면 자신이 기록한 많은 글들이 전략에 관한 주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정제되지 않거나 거친 자료에 불과’하다고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전체로 용해시킬 수 있다’라는 각오를 드러내었다.²¹⁾ 이 시기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이 적어도 개별주제에 관해서 만큼은 ‘가장 중요한 결정체만을 골라내어’ 집약해서 분석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이러한 개별주제들에 관한 논문들을 ‘체계화’해서 종합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 진전되고 깊이 몰입됨에 따라 이론체계를 중시하게 되었고 장절 편성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종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오래 전에 작성한 논문들을 다시 검토하여 여러 사실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고 최근에 작성한 논문들 속에 담긴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8절판 크기의 소책자로 엮고자 했다.”²²⁾

이 시기 까지만 해도 클라우제비츠는 1806년부터 1815년까지 장기간 수행되었던 나폴레옹 전쟁의 주요 전역들을 그때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면서 ‘단일전역’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치밀한 분석을 했다고 자평하였다.²³⁾ 이 시점 까지도 자신이 분석한 논문들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작성된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체계와 설계를 고려하지

21) Clausewitz, *On War*, p.64.

22) Clausewitz, *On War*, p.64.

23) Azar Gat, *The Origins of Military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Clausewitz*(Clarendon Pr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193~194.

않은 채 주제의 가장 중요한 논점들에 관해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절제된 문장으로 논술”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3차 저술기간(1818-1827)은 클라우제비츠가 베를린 전쟁학교 학교장을 했던 시기로 전쟁론 집필의 가장 결정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예를 들어 “1804년의 전략”과 “1812년의 러시아원정에 관하여”, “전쟁사에 관한 130개의 전투사”와 같은 논문은 전쟁이론 구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²⁶⁾ 이 시기(1827년)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론 구성을 위한 근본적인 딜레마에 봉착했다. 그는 이미 8편(전쟁이론)을 제외하고 1-7편까지의 초안을 모두 완성한 상태였으나,²⁷⁾ 이 7개의 부분들을 하나의 일관된 관점 하에 ‘하나의 전체’로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일관된 관점이란 “적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과 단순히 국경지대에서 몇몇 지역의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이 존재한다”는 점과, 다른 한편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행하는 정치와 다를 바 없다”는 필수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²⁸⁾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으로 제1편에서 제6편까지를 전반적으로 다시 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²⁹⁾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827년 시점에서 클라우제비츠는 1편-6편에 대해서 일관된 관점의 정립 없이 개별 주제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적어도 개별주제로서는

24) Clausewitz, *On War*, p.63.

25) Hartmann, *Carl von Clausewitz: Erkenntnis, Bildung, Generalstabsausbildung*, p.33. 클라우제비츠의 보직이 행정책임자였기 때문에 교수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러시아군 복무경력, 개혁 성향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교수부 업무에서 배제되는 ‘한직’이었지만 그만큼의 학문적 열정을 ‘전쟁론’ 집필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

26) Dietmar Schoessler, *Carl von Clausewitz*(Hamburg, 1991), p.79.

27) Clausewitz, *On war*, p.69. 7편은 초고만 작성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 관점을 반영하여 편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8편은 자료연구 조사만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28) Clausewitz, *On War*, p.69.

29) Clausewitz, *On War*, p.69.

1편-6편의 완성도는 높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하나의 전체’로서 전쟁이론화할 경우 일관된 ‘관점’과 ‘분석의 틀’이 없다고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고민 끝에 자신이 도출한 두 가지 관점을 초안상태의 7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작해야 하며 앞으로 작성할 8편도 그러한 관점으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³⁰⁾

4차 저술기간(1827-1830)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함과 동시에 전쟁론 전체 관점과 분석의 틀을 완성해나가는 시기였다. 183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서 클라우제비츠는 미완성한 상태의 논문들을 “단지 몇몇의 개별 논문들의 모음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이를 기초로 ‘대규모 전쟁수행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³¹⁾ 이 당시 클라우제비츠가 야전부대로 전출되기 얼마 전의 시점을 감안하면 클라우제비츠가 자신의 논문들을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편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직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자신의 미완성 역작들이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짜여진 ‘전쟁이론’ 형태의 단행본으로 편집되지 못하고 “몇몇의 논문 모음집”으로 남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³²⁾ 여기서 그는 또 다시 제6편이 ‘전체적으로 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요한 것은 1편 1장에 대한 언급과 역할에 관한 부분이다. 1830년 메모에서 클라우제비츠는 “1편 1장은 전체 원고 중에서 완성했다고 간주하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였으며, 1편 1장이 전체 내용에 대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밝혔

30) Clausewitz, *On War*, p.70.

31) Clausewitz, *On War*, p.70. 독일어 원문에는 ‘개별 작업들의 모음(eine Sammlung von Werkstuecken)’이라고 표현한데서 알 수 있듯이 ‘전쟁론’이 아직 짜임새 있는 수준의 내용상 편집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Clausewitz, *von Kriege*, p.79.

32) Clausewitz, *On War*, p.70.

다.³³⁾ 이것은 1810~1830년간의 개별주제에 대한 개별 논문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전쟁론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관점’과 ‘분석의 틀’을 식별했음을 의미한다. 전쟁론 전반에 걸친 ‘개작’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적어도 1편 1장을 완성함으로써 전쟁론 전체에 대한 방향성은 설정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1편 1장은 “몇몇의 논문 모음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쟁론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편 1장은 미완성된 “몇몇의 논문 모음집”을 일관된 관점으로 해석하여 일관된 전쟁이론서로 승화시켜주는 분석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1편 1장은 클라우제비츠가 가장 나중에 작성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학술논문을 집필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서론’과 ‘분석의 틀’ 부분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방법론과 비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클라우제비츠는 1827년 1편-6편을 완성한 이후 이들을 일관된 관점에 기초하여 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830년 7편-8편이 완성되자 1-8편 전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1편 1장’ 집필을 완료하였다. 그러면서 클라우제비츠는 ‘1편 1장’에 기초하여 ‘몇몇의 논문모음집’을 전쟁이론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저자의 언급으로 보아 전쟁론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책은 1편 1장의 관점이 없었더라면 ‘몇몇의 논문 모음집’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³⁴⁾ 그러나 ‘전쟁론’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론서가 남을 수 있는 것은 ‘논문 모음집’ 전반을 관통하는 ‘이론적’ 관점과 ‘분석틀’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편 1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33) Clausewitz, *On War*, pp.70~71.

34) Clausewitz, *On War*, pp.70~71.

나. 1편 1장의 논리구조 : ‘세 가지 전역’, ‘두 가지 유형의 전쟁과 정치우위’

그렇다면 클라우제비츠의 분석대상인 세 가지 전쟁형태와 1편 1장의 논리구조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로테에 따르면 클라우제비츠는 예나 전역(1806), 모스크바 전역(1812), 워털루 전역(1815) 등 세 가지 전쟁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쟁론의 전체적인 초점과 관점을 정립하게 되었다.³⁵⁾ 클라우제비츠의 주관심사는 전쟁수행의 주요 대비논점으로서 “폭력의 무제한성 對 제한성”, “군사우위 對 정치우위”, “공격 우선 對 방어 우세”에 관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³⁶⁾ 구체적으로 클라우제비츠가 1편 1장의 28번째 명제로 제시한 ‘전쟁이론을 위한 결론’ 부분에서 전쟁의 이중성으로서 ‘카펠레온’적 전쟁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경이로운 삼위일체’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논리 속에 바로 ‘예나-모스크바-워털루’의 삼위일체가 투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³⁷⁾

예나 전역은 ‘초기 클라우제비츠(early Clausewitz)’의 절대전쟁 사상의 경험적 분석 모형이었다. 예나전역은 프로이센군이 프랑스군에게 참혹한 패배를 당한 사례로서 “왜 프랑스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으며, 프로이센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핵심 질문이었다.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군이 프랑스혁명이라는 거대한 자유주의적 해방정신의 ‘감정’으로 무장된 ‘국민’이 전국각적으로 동원되어 만들어진 군대였기 때문에 ‘내각의 군대’에 머물렀던 프로이센군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1806년의 예나 전역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분석에 있어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35) Herberg-Rothe, *Clausewitz und Napoleon: Jena, Moskau, Waterloo*, pp.9~10.

36) 김태현,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 대한 재인식, 『군사』 제82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82.

37) Herberg-Rothe, *Clausewitz und Napoleon: Jena, Moskau, Waterloo*, pp.9~17.

예나전역에서 자신의 조국인 프로이센이 프랑군에게 대패를 당하였는데 1793년 전투와 유사하게 프로이센군대의 패전 원인을 나폴레옹군의 근대적 전쟁수행과 프로이센군의 ‘프리드리히 대왕 시대의 구시대 유물’과 비교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군의 우세는 나폴레옹의 군사적 천재성, 정신적 우세(‘정부’가 아니라 ‘민족국가’가 重心), 앞의 두 요소와 연계되어 있는 ‘무제한의 전쟁수행’에 기인한다고 보았다.³⁸⁾

초기 클라우제비츠가 인식했던 나폴레옹전쟁은 절대전쟁의 모습이었다. 특징적으로 “왕 對 왕 또는 군대 對 군대의 전쟁”이 아닌, “국민 對 국민의 전쟁”로 표현할 수 있다.³⁹⁾ 그는 “국민이 전쟁의 참여자가 되었다. 이전처럼 정부와 군대대신, 국가는 이제 전체가 전쟁 속으로 빨려들었다. 이것으로 전쟁수행의 힘이 가속화되었다”고 표현했다. 실제 프랑스는 1793년 징병제를 선포한 이후부터 1794년까지 약 75만 명이 무장되었는데 이 중에는 징집병, 구식군대의 직업군인, 지원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⁴⁰⁾ 노동력의 차출로 인해 농촌경제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징집제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병력을 보충하는 핵심적인 기능이였다.⁴¹⁾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군의 군사적 성공은 ‘국민동원’에 기반하였고 그 기저에는 ‘혁명적 이념’과 ‘감정’이 자리잡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전쟁수단을 등을 업고 있던 나폴레옹의 전쟁수행 방법은 적극적인 공세와 결전추구, 군사의 정치에 대한 우위, 폭력의 무제한적 발휘, 추격과 섬멸이라는 공식으로 표출되었다.⁴²⁾ 나폴레옹군은 국민 감정을 무기로 ‘폭력의 무제한적 발휘’라는 극단적인 절대전쟁을

38) Herberg-Rothe, *Das Raetschel Clausewitz*, p.29.

39) “Bekennnisschrift”, in Werner Hahlweg, ed., 1966, p.750.

40) Hugh Smith, *On Clausewitz: A Study of Military and Political Ideas*(Palgrave, 2005), p.29.

41) Smith, *On Clausewitz: A Study of Military and Political Ideas*, p.29.

42) Smith, *On Clausewitz: A Study of Military and Political Ideas*, p.29.

추구하였고 적어도 1812년 모스크바 원정이전까지의 유럽 전역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클라우제비츠는 1806년 예나 전역에서 나폴레옹군의 군사적 성공요인은 ‘절대전쟁’의 추구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나폴레옹은 예나전역에서 결정적 지점에서의 결전추구, 전쟁의 폭력/강도/목표의 무제한적 발휘를 전쟁 원칙으로 여기고 프로이센군을 섬멸했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은 전투이며 주회전은 언제나 전쟁의 핵심적인 중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클라우제비츠는 적 주력의 직접적 섬멸이야말로 전쟁성공을 위한 지배적인 원칙이며 폭력의 극대화는 성공적인 전쟁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예나 전역을 분석할 당시의 초기 클라우제비츠는 ‘군사’가 외교와 이상에 초점을 둔 ‘정치’를 능가한다는 사례입증에 주안이 있었다. 이로써 초기 전쟁론 서술의 초점은 나폴레옹군대의 승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서의 ‘국민’의 등장과 역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군사의 우위에 있었다.⁴³⁾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1812)과 워털루 전투(1815)는 클라우제비츠의 초기 군사사상에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이었다. ‘후기 클라우제비츠(later Clausewitz)’라 부를 수 있는 모스크바 전역과 워털루 전역에서 나폴레옹군 실패 요인은 나폴레옹이 군사에 대한 정치의 우세, 결전회피의 군사적 의미, 군사적 수단에 내재된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았다. 초기(예나 전역)의 나폴레옹군의 승리 요인이 후기에는 반대로 실패원인이 되었다. 1812년 러시아원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나폴레옹군대의 가용한 자원과 전략적 목표설정, 그리고 러시아군의 방어전술과 방어의 이점에 관한 것이었다. 워털루 전투 분석을 통해서 정치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43) 김태현, 앞의 책, p.84.

미쳤다. 프랑스에 대한 反프랑스동맹의 형성, 그리고 무제한 전쟁 수행의 위험성(스스로 전쟁에서 자멸할 수 있는 위험)은 전쟁수행과 전쟁의 제한에 있어 정치의 중요성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클라우제비츠의 직접적인 참전 경험(1793/1806-1815)을 통해 초기 클라우제비츠와는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⁴⁴⁾

모스크바 전역과 워털루 전역을 분석하기 시작했던 1816년 이후의 집필과정에서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적 승리가 정치의 산물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폴레옹은 1812년 모스크바 전역에서도 1806년의 예나전역과 유사한 형태의 절대전쟁을 추구했음에 불구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것은 나폴레옹군이 더 이상 전쟁초기처럼 개별국가들과 상대하는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의 연합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외교적인 변수가 전쟁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은 초기와는 달리 전쟁의 본질이 군사가 아닌 정치 이익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모스크바 전역이 초기 클라우제비츠의 절대전쟁론에 대한 변화의 시발점이었다면 워털루 전역은 자신의 ‘정치의 우위’ 인식을 재확인하는 사례가 되었던 것이다.

전쟁론 전체에 대한 ‘일관된 관점’과 분석의 틀이 되는 1편 1장을 집필할 때 클라우제비츠의 근본적인 고민은 초기 클라우제비츠와 후기 클라우제비츠로 대표되는 세 가지 상반된 논점을 어떻게 하나의 관점으로 수렴해나가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세 가지 논점이란 “전쟁 폭력·강도·목표의 극단적 발휘 對 전쟁의 정지 현상”, “군사 우위 對 정치우위”, “공격 우위 對 방어 우위”를 말하는 것이었

44) Christopher Bassford, *Clausewitz and his works*, in <http://www.clausewitz.com/CWZHOME/WZSUMM/CWORKHOL.htm> (검색일: 2015. 3. 27), p.5.

다.⁴⁵⁾ 그것은 각각 “예나 전역(1806) 對 위털루 전역(1815)”의 상반된 전쟁의 본질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대비논점으로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1편 1장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예나 전역(1806) 對 위털루 전역(1815)”의 상반된 전쟁수행 형태를 “절대전쟁 對 현실전쟁”의 대비 논점으로 이끌어 내려하였다. 여기서 폭력의 극단성이 표출되는 절대전쟁과 그 극단성이 완화되어 정지에 이르게 되는 현실전쟁이라는 전쟁의 이중적 속성을 어떻게 하나의 이론으로 용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제비츠는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전쟁은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가변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서 “감성-이성-우연”이라는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식별하였고 이를 “국민-정부-군대”의 속성과 연계하여 전쟁의 본질을 ‘카멜레온’으로 정리하였다. 클라우제비츠가 세 가지 전쟁모형을 가지고 도출한 일관된 관점으로서의 전쟁이론을 1편 1장에서 분석틀로 제시하려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쟁의 본질 : 1편 1장의 논리구조

논리구조	분석대상	전쟁요소의 변화	전쟁의 본질
초기 클라우제비츠	예나/아우어슈테트 (1806)	전쟁의 폭력, 목표, 강도 극대화	절대전쟁
↓	↓	↓	↓
후기 클라우제비츠	모스크바(1812) 위털루(1815)	전쟁의 폭력, 목표, 강도의 완화 전쟁의 폭력, 목표, 강도의 정지	현실전쟁
↓	↓	↓	↓
결론	세 전역의 본질	극대화-완화-정지의 동학	카멜레온과 삼위일체

45) Herberg-Rothe, *Das Raetsel Clausewitz*.

3. 1편 1장에 대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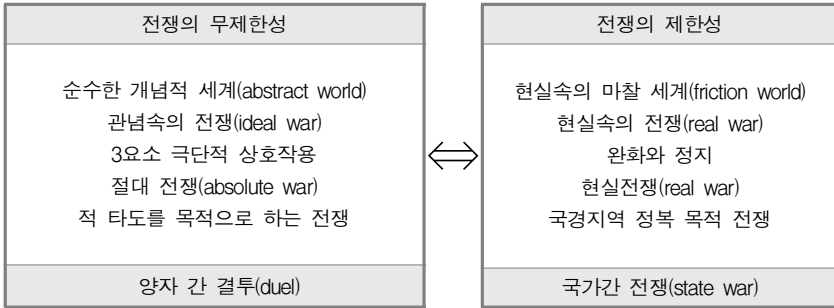
가. 1편 1장의 대질문과 해답: 전쟁의 개념으로서 ‘카멜레온(chameleon)’에 대한 접근

1편 1장은 T1-T28까지 총 28개의 소명제로 압축적으로 작성되었다.⁴⁶⁾ 클라우제비츠가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독자들에게 피곤함을 주는 이유는 자신의 논리전개의 흐름을 의미단위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28개의 명제들을 나열식으로 늘어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읽기방식으로는 1편 1장의 내용을 한눈에 간파하기 어렵다.

난해한 방식으로 서술된 28개 소 명제들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클라우제비츠의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결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우선, 클라우제비츠는 서두에 “전쟁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1편 1장의 마지막 부분인 28번째 명제에 전쟁의 개념을 ‘진정한 카멜레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1편 1장의 1-27번까지의 소명제들은 왜 전쟁을 카멜레온이라고 정의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들이라고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초기 클라우제비츠와 후기 클라우제비츠로 대표되는 ‘개념(Begriff)과 현실(Wirklichkeit)’ 또는 ‘관념(Gedanken)과 실제(Praxis)’의 정반(正反) 요소들을 ‘양자간 결투(Zweikampf)와 현실전쟁(Krieg)’의 대비구조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⁴⁷⁾

46) *vom Kriege*는 총 24페이지(pp.89-112), *On War*는 총 15페이지(pp.75~89), 『전쟁론』은 26페이지(pp.33~58) 분량이다.

47) Smith, *On Clausewitz: A Study of Military and Political Ideas*, p.61.



〈그림 1〉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의 대비논점

1편 1장은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이라는 대비 논점에 따라 절대전쟁 → 현실전쟁 → 카멜레온적 전쟁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적인 논리구조로 보이는 1편 1장의 사유의 실을 따라가다 보면 혼잡하게 보이는 1편 1장의 본문 구성이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⁴⁸⁾ 의미단위로 볼 때 1편 1장은 크게 세 개 절(節)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데 T1-T5는 1절로서 ‘절대전쟁’을, T6-T27는 2절로서 ‘현실전쟁’을, 그리고 T28은 3절로서 ‘카멜레온적 전쟁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절에 해당되는 T1-T5는 ‘절대전쟁’의 개념과 절대전쟁의 특성으로서 전쟁의 무제한적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절인 T6-T27까지는 ‘현실전쟁’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또 다시 4개 세부 의미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48) Gat, *The Origins of Military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Clausewitz*, p.176.; pp.241-248. 상반된 양 극단의 논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해 나가는 논리구조는 변증적이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변증법적 논리검증을 거쳤다고 보여진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와 헤겔(G. Hegel 1770-1831)의 직접적인 철학적 영향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나 적어도 클라우제비츠는 베를린 전쟁학교 교관 키제베터(Johann Kiesewetter)로부터 변증법적 철학에 대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클라우제비츠는 헤겔의 변증법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모순적 현실 요소들을 궁극적으로 통합시키는 ‘진테제(Synthese)’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단락은 절대전쟁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T6-T9), 두 번째 단락은 현실전쟁에서 전쟁의 폭력성이 완화되는 이유(T10-T11), 세 번째 단락은 현실전쟁에서 군사적 정지가 발생하는 원인(T12-T18),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전쟁의 제한성 원리(T19-T27)에 대한 소결론이 제시되어 있다. 3절은 전쟁의 본질(T28)로서 ‘카멜레온적’ 전쟁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1절과 2절에서 논의되었던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의 이중적 속성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표 3〉 1편 1장의 28개 소명제

T1. 서론(Einleitung) T2. 정의(Definition) T3. 폭력의 극단적 운용(Aeusserst Anwendung der Gewalt) T4. 목표는 적을 무장해제하는 것((Das Ziel ist den Feind wehrlos zu machen) T5. 힘의 극단적 발휘(Auesserte Anstrengung der Kraefte)	절대전쟁	
T6. 현실적 제한(Modifikationen in der Wirklichkeit) T7. 전쟁은 결코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Der Krieg ist nie ein isolierter Akt) T8. 전쟁은 지속시간 없이 단 한번의 타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Es besteht nicht aus einem einzigen Schlag ohne Dauer) T9. 전쟁의 결과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Der Krieg ist mit seinem Resultat nie etwas Absolutes)	3요소 (폭력, 목표, 힘)의 완화와 완화 요인	현실 전쟁
T10. 현실생활의 개연성은 개념의 극단성과 절대성을 대신한다(Die Wahrscheinlichkeiten des wirklichen Lebens treten an die Stelle des Aeusserten und Absoluten der Begriffe) T11. 이제 정치적 목적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다(Nun tritt der politische Zweck wieder hervor)		

<p>T12. 군사적 활동의 정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Ein Stillstand im kriegerischen Akt ist dadurch noch nicht erklart)</p> <p>T13. 단 한가지의 원인만이 행동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은 항상 어느 한편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Es gibt nur einen Grund welcher das Handeln aufhalten kann und dieser scheint immer nur auf einer Seite sein zu koennen)</p> <p>T14. 따라서 군사적 행동은 연속성을 가지게 되며, 이 연속성은 모든 것을 상승시킨다.(Dadurch wuerde eine Kontinuitaet in das kriegerische Handeln kommen, die alles wieder steigerte)</p> <p>T15. 여기서 이른바 양극성의 원리가 필요하다.(Hier wird also ein Prinzip der Polaritaet in Anspruch genommen)</p> <p>T16. 공격과 방어는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강도의 요소이므로 양극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Angriff und Verteidigung sind Dinge von verschiedener Art und von ungleicher Staerke, die Polaritaet kann also nicht auf sie angewendet werden.)</p> <p>T17. 공격에 대한 방어의 우위는 때때로 양극성의 영향을 소멸시키고 군사적 행동의 정지를 설명해준다.(Die Wirkung der Polaritaet wird oft durch die Ueberlegenheit der Verteidigung ueber den Angriff vernichtet, und so erklart sich der Stillstand des kriegerischen Aktes)</p> <p>T18. 군사적 행동을 정지시키는 두 번째 원인은 불완전한 상황파악에 있다.(Ein zweiter Grund liegt in der unvollkommenen Einsicht des Falles)</p>	<p>군사적 정지</p>	
<p>T19. 군사적 행동의 빈번한 정지는 전쟁이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확률계산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Der haeufige Stillstand im kriegerischen Akt entfernen den Krieg noch mehr vom Absoluten, macht ihn noch mehr zum Wahrscheinlichkeitskalkuel)</p> <p>T20. 전쟁을 도박으로 만들려면 우연이 필요하다. 전쟁과 우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Es fehlt also nur noch der Zufall, um ihn zum Speil zu machen, und dessen entbehrt er am wenigsten)</p> <p>T21. 전쟁은 본질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도박이다.(Wie durch seine objektive Natur, so wird der Krieg auch durch die subjektvie zum Spiel)</p> <p>T22. 이러한 것은 인간의 정신과 가장 부합한다(Wie dies dem menschlichen Geiste im allgemeinen am meisten zusagt)</p>		<p>군사적 정지에서 파생된 전쟁의 본질</p>
<p>T23. 그러나 전쟁이 중대한 목적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다.(전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Aber der Krieg bleibt doch immer ein ernsthaftes Mittel fuer einen ernsthaften Zweck. Naehere Bestimmungen desselben)</p> <p>T24.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불과하다(Der Krieg ist eine blosse Fortsetzung der Politik mit anderen Mitteln)</p> <p>T25. 전쟁의 다양한 유형(Verschiedenartigkeit der Kriege)</p> <p>T26. 모든 전쟁은 정치적 행동으로 간주될수 있다(Sie koennen alle als politische Handlungen betrachtet werden.)</p> <p>T27. 전쟁사에 대한 이해와 전쟁이론의 기초와 관련하여 이상의 관점이 낳은 결과(Folgen dieser Ansicht fuer das Verstaendnis der Kriegsgeschichte und fuer die Grundlagen der Theorie)</p>	<p>소결론</p>	
<p>T28. 이론을 위한 결론(Resultat fuer die Theorie)</p>	<p>전쟁의 이중성과 삼위일체</p>	

나. ‘관념 실험실(Gedankenexperiment)’로서 절대전쟁 : 전쟁의 무제한성

T1. 서론(Einleitung)

T2. 정의(Definition)

‘T2. 정의’는 전쟁의 본질을 논하기 위해 “관념상의 실험실”을 상정하여 전쟁개념의 정의를 시도하는 1편 1장의 출발점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절대적 양상을 상위에 놓고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 활용”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절대적 양상이 되는 ‘양자 간 결투’를 ‘기본 척도’로 설정하였다.⁴⁹⁾ 클라우제비츠에게 있어 개인 수준의 양자 간 결투는 이론을 위한 극단적인 참고점이었다. 그리고 개인 수준의 결투를 국가수준의 전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대규모로 확장시킨 양자 간의 결투’에 불과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을 강요하는 폭력 행동”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클라우제비츠가 개인 간의 결투를 전쟁과 동일시하면서 정의한 최초의 시도이다.

“전쟁은 확대된 양자 간 결투에 불과하다. 양자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을 강요하는 폭력행동이다. …폭력, 즉 물리적 폭력은 전쟁의 수단이고,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전쟁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적을 무장해제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이론상 전쟁의 고유목표이다. 이 목표는 전쟁의 목적을 대신하고 전쟁자체에 속하지 않는 전쟁의 목적을 배제한다.”⁵⁰⁾

49) 류제승, 앞의 책, p.371.

50) Clausewitz, *Vom Kriege*, pp.89-90.

여기서 말하는 양자 간 결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결투는 적의 타도라는 목적, 물리적 폭력이라는 수단, 적을 무장해제시키려는 목표의 관계로 수행된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결투는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표-목적-수단의 관계가 하나의 단독 행위자가 아닌 적어도 둘 이상의 행위자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때 목표-목적-수단으로 특징되어 지는 아군의 행동 양상은 적의 목표-목적-수단에 의해 결정되어진다.⁵¹⁾ 따라서 단일 행위자의 고립된 행동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행동은 대응을 유발하게 된다. 적의 목표-목적-수단관계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두 행위자는 ‘적의 타도’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전쟁의 무제한성(Entgrenzung des Krieges)’의 위험이 발생한다.⁵²⁾ 이러한 전쟁의 무제한성을 클라우제비츠는 세 가지 ‘극단적 상호작용(Wechselwirkung zum aeußersten)’이라고 표현하였다.

T3. 폭력의 극단적 운용(Aeußerst Anwendung der Gewalt)

T4. 목표는 적을 무장해제하는 것(Das Ziel ist den Feind wehrlos zu machen)

T5. 힘의 극단적 발휘(Auesslerte Anstrengung der Kraefte)

T3-T5는 절대전쟁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극단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극단적인 상호 작용이 전쟁의 무제한성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양자 간 결투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극단적 상호작용은 ‘폭력’의 극단적 운용이다.(T5)⁵³⁾ 양자 간 결투에서 한 번의 결투로 승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 한 번의 결투는 ‘의지’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강요 당하는 결전이 되기 때문에 결투에 임하는 쌍방 모두 가장 무자비한 폭력을 투사할

51)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p.13.

52)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p.13.

53) Clausewitz, *On War*, pp.75-77.

것이라는 생각이 이면에 작용하고 있다. 만약 제2의 결투가 있다면 결전을 연기할 수 있을 것이며 폭력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단 한 번의 결투로 승부가 날 경우 결투에 참가한 양자 모두 가장 극단적인 폭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투사함으로써 상대방의 무장해제를 시도한다. 가장 무자비한 잔혹한 폭력을 동원하는 한 일방이 결투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결투하는 양자에게 그대로 작용될 경우 폭력의 강도는 무한으로 증폭될 것이며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상호작용은 ‘적의 무장해제라는 목표’의 극단적 발휘이다.(T6)⁵⁴⁾ 양자 간 결투에서 1회의 결투로 모든 승리가 종결지어질 경우 양자 모두 “내가 적을 타도하지 못하면 적이 나를 타도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내가 적에게 나의 법칙과 의지를 극단적으로 강요”하는 원칙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적은 ‘타도’라는 목표를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거나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나의 ‘타도’ 목표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공산이 크다. 이러한 계산은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될 것이며 이로써 ‘적의 타도’라는 결투의 고유 목표는 극단적으로 고조되는 것이다.

세 번째 상호작용으로서 결투에 임하는 양자 모두 자신의 ‘노력(강도)’을 극단적으로 투사할 것이다.⁵⁵⁾(T7) 여기서 ‘힘’은 현존 수단의 규모와 의지의 강도를 복합적으로 배합한 것으로 수단 규모는 측정가능하나 의지의 규모는 계량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양자 간 결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과 아군은 서로 상대방보다 자신의

54) Clausewitz, *On War*, pp.75-77.

55) Clausewitz, *On War*, pp.75-77. 영어본에서는 ‘strength’(강도)로 번역되어 있으며, 류제승의 번역본은 ‘힘’으로, 독일어 원본은 ‘Anstrengung’(노력, 열의)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는 ‘힘’이라는 번역용어보다는, 영어본의 ‘강도’ 또는 ‘노력’이 문맥상 더 적합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노력크기를 배가하려고 할 것이며 이에 비례하여 적도 아군보다 우월한 노력을 투사하려는 ‘무한경쟁’을 반복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투사하는 노력의 크기만큼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러한 무한경쟁의 동학 속에서 힘과 노력은 극단적으로 발산될 것이다.

이렇듯 전쟁의 폭력(force), 목표(object), 노력(strength)이 극단적으로 발휘되어 전쟁의 무제한화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쟁을 절대전쟁(absolute war) 또는 관념속의 전쟁(ideal war)이라고 규정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절대전쟁의 모습을 1806년 예나 전역에서 나폴레옹군의 전쟁수행 형태에서 추론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전쟁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관념속의 전쟁’의 모습과 대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념속의 전쟁이 과연 현실전쟁의 모습과는 얼마나 일치하는 것인가? 용어가 이미 말해주듯이 관념속의 전쟁 또는 절대전쟁은 현실 속에는 그 자체의 형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클라우제비츠는 절대전쟁은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론에서 무엇인가 배우려는 사람은 전쟁의 절대적 양상을 염두에 두으로써 이 양상을 모든 희망과 공포를 계측하는 기본 척도로서 삼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⁵⁶⁾ 클라우제비츠는 절대전쟁이 단지 “관념의 실험실”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전쟁 형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절대전쟁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절대전쟁이 이론 구성을 위한 극단적인 참고점으로서 현실에서는 달성되지 않으며 단지 이론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폭력과 목표, 그리고 강도가 무한대로 고조되는 절대전쟁은 현실에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절대전쟁의 ‘경향’을 띤 전쟁은 존재할 것이다.

56) 류제승, 앞의 책, p.371.

클라우제비츠가 생각한 양자 간 결투는 말 그대로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다. 절대전쟁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현실전쟁의 제한성

- 1) 양자 간 결투의 속성이 현실세계에서 국가전쟁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이유

그렇다면 왜 현실세계에서는 양자 간 결투와 같이 극단적·무제한적 형태의 절대전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T6-T27은 절대전쟁이 현실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전쟁의 완화와 정지, 즉 ‘전쟁의 제한성’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T6(현실적 제한)은 절대전쟁의 속성을 띤 양자 간 결투가 현실세계에서는 실제로 그 폭력성, 목표의 극단성, 강도의 극단성이 제한되고 완화된다는 점을 알리는 부분이다. 이것은 앞선 절대전쟁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현실전쟁으로 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1812년 모스크바 전역과 1815년 워털루 전역에서 나폴레옹군의 전쟁수행 실패 사례를 분석한 중간 결론으로 볼 수 있다.

T6. *현실적 제한(Modifikationen in der Wirklichkeit)*

T7. *전쟁은 결코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Der Krieg ist nie ein isolierter Akt)*

T8. *전쟁은 지속시간 없이 단 한번의 타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Es besteht nicht aus einem einzigen Schlag ohne Dauer)*

T9. *전쟁의 결과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Der Krieg ist mit seinem Resultat nie etwas Absolutes)*

T7-T9은 절대전쟁으로서 전쟁의 무제한성이 현실세계에서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전쟁 개전의 비고립성이다.⁵⁷⁾(T7) 현실전쟁은 양자 간 결투와는 달리 전쟁 발발

57) Clausewitz, *On War*, pp.78-80.

이전의 정치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쟁과 정치의 지속적인 관계성으로 인해 개전시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므로 결정적인 시점과 장소에 모든 가용한 폭력을 최대한의 강도와 의지로 집중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전쟁은 절대 돌연히 또는 우연히 기습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인간이라는 주체에 내재된 ‘불완전성’으로 인해 결코 전쟁의 절대성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절대적인 폭력의 집중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전쟁은 단일결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소규모, 동시적 결전의 결과로 결판이 난다.(T8)⁵⁸⁾ 또한 모든 전투력과 자산을 동시에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국 군사력의 동시통합 운용이 극히 제한된다. 양자 간 결투와는 달리 현실전쟁은 시공간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시에 조직하거나 광범위한 국토에서 순식간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쟁수행에서 동맹국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맹국들의 전쟁개입은 일정기간의 눈치 보기와 관망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동일 시점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모든 전투력의 동시 집중은 전쟁의 본질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셋째, 전쟁종결 후 전쟁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성이다.⁵⁹⁾(T9) 전쟁에서 한 일방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현실전쟁에서는 그러한 패배의 결과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력이 완화된다는 의미이다. 즉 전쟁에 패배한 국가에게 회생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결과가 절대적 영향을 가지지 못하며 단지 잠정적 해악으로 간주될 뿐 언제나 구제책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은 연합국에게 패배하였

58) Clausewitz, *On War*, pp.78-80.

59) Clausewitz, *On War*, pp.78-80.

으나 결과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국제질서(냉전)의 변화에 힘입어 연합국의 동맹국으로서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또 다시 전면에서 나서는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현실적인 이유, 즉 전쟁개전의 비고립성, 단일결전의 제한적 영향력, 전쟁결과의 상대성으로 인해 전쟁의 강도는 절대성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2) 전쟁의 무제한성이 완화되는 이유 : 개연성과 정치

T10. *현실생활의 개연성은 개념의 극단성과 절대성을 대신한다(Die Wahrscheinlichkeiten des wirklichen Lebens treten an die Stelle des Aeusserten und Absoluten der Begriffe)*

T11. *이제 정치적 목적이 다시 전면에서 등장한다(Nun tritt der politische Zweck wieder hervor)*

T10-T11은 현실전쟁에서 전쟁의 극단적 상호작용이 완화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무제한성이 이론으로서 관념의 세계에서만 머물고 반대로 현실세계에서는 ‘제한’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T10-T11) 첫째, 현실세계의 우연과 개연성 때문에 극단성과 절대성이 사라진다.⁶⁰⁾(T10)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우연의 법칙으로 인해 교전하는 양자는 극단적인 전투력 사용을 회피하게 된다. 왜냐하면 교전하는 쌍방 모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자신의 자원을 보존하고 닥칠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교전자는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의 노력의 한계를 설정하고 미래 노력을 ‘예비’로 보존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전쟁에서의 ‘마찰(friction)’이 전쟁의 극단적 경향을 ‘제한’하는 동학에 대해서는 1편 7장 ‘마찰’편에서 상술되어 있다.⁶¹⁾

60) Clausewitz, *On War*, p.80.

61) Clausewitz, *On War*, p.119.

둘째, 정치적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이다.(T11) 전쟁의 안개와 불확실성이외에도 정치적 목적이 전쟁을 본질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전쟁의 강도는 완화된다. 만약 적에게 요구하는 희생이 적다면 적의 저항노력도 낮아질 것이며, 우리의 노력이 적다면 적의 노력도 적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전쟁폭력의 제한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 그 자체가 척도가 될 수 없으며 국민대중의 영향력이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폭발력은 국민대중간의 긴장과 적대 수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무제한화 과정에서 정치를 ‘근원적인 힘’이라고 보는 관점은 어디까지나 정치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만 정치가 전쟁 폭력에 제어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정하였다. 다시 말해 정치와 국민간의 상호관계는 ‘정치가 단지 특정한 정도까지만 국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정치의 목적이 효력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국민의 감정이 정치를 후면으로 퇴출시키게 되며,⁶²⁾ 이러한 경우 전쟁은 또다시 절대적·무제한적 전쟁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치는 전쟁의 목적을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에 적절한 목표를 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비로소 전쟁 폭력의 극단적 발휘에 ‘제어적(regulative)’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⁶³⁾

62)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p.15.

63)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p.15.

3) 군사적 정지의 발생 원인 : 공격에 대한 방어에 우위, 전쟁의 불확실성⁶⁴⁾

- T12. 군사적 활동의 정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Ein Stillstand im kriegerischen Akt ist dadurch noch nicht erklart)
- T13. 단 한가지의 원인만이 행동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은 항상 어느 한쪽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Es gibt nur einen Grund welcher das Handeln aufhalten kann und dieser scheint immer nur auf einer Seite sein zu koennen)
- T14. 따라서 군사적 행동은 연속성을 가지게 되며 이 연속성은 모든 것을 상승시킨다.(Dadurch wuerde eine Kontinuitaet in das kriegerische Handeln kommen, die alles wieder steigerte)
- T15. 여기서 이른바 양극성의 원리가 필요하다.(Hier wird also ein Prinzip der Polaritaet in Anspruch genommen)
- T16. 공격과 방어는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강도의 요소이므로 양극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Angriff und Verteidigung sind Dinge von verschiedener Art und von ungleicher Staerke, die Polaritaet kann also nicht auf sie angewendet werden.)
- T17. 공격에 대한 방어에 우위는 때때로 양극성의 영향을 소멸시키고 군사적 행동의 정지를 설명해준다.(Die Wirkung der Polartaet wird oft durch die Ueberlegenheit der Verteidigung ueber den Angriff vernichtet, und so erklart sich der Stillstand des kriegerischen Aktes)
- T18. 군사적 행동을 정지시키는 두 번째 원인은 불완전한 상황파악에 있다.(Ein zweiter Grund liegt in der unvollkommenen Einsicht des Falles)

T12-T18은 전쟁의 극단적 성향이 현실전쟁에서 ‘완화’된 후, ‘정지’에 이르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현실전쟁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절대전쟁의 무제한성이 현실세계에서 ‘제한’되는 경로를 설명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순차적으로 T10-T11에서 전쟁의 ‘완화’를 설명한 후 마침내 전쟁의

64) ‘군사적 정지’라는 개념은 류제승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독일어로는 ‘Stillstand im kriegerischen Akt’로서 직역하자면 ‘전쟁 행위에서의 정지상태’를 의미한다. 전쟁론에서 언급된 ‘정지상태(Stillstand)’는 분석수준이 전쟁 전략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재 미군 군사교리에서 사용하는 ‘작전적 정지(operational pause)’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기서는 전쟁의 무제한성이 완화-정지에 이르는 경로와 논리를 설명하는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정지상태’의 속성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무제한성이 ‘정지’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한다.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군사적 정지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⁶⁵⁾(T17-T18) 그것은 공격에 대한 방어에 우위(T17), 그리고 상황파악의 불안정성(T18)이다. T13-T16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하는 논리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군사적 정지는 “행동에 보다 유리한 시기를 기다리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⁶⁶⁾(T13) 상호 의도파악이 이루어진다면 약한 측은 상대적으로 강한 측이 준비를 마치기 전에, 반대로 강한 측은 약한 측이 더 강해지기 전에 예방공격(preventive) 또는 선제공격(preemptive)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예견된다면 양자는 끊임없이 다시 충돌할 것이다. 따라서, 더 강한 동기를 가진 편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투력 가진 경우를 균형으로 정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군사적 정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전쟁은 양자의 이익이 제로섬(zero sum game)적 ‘양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쟁에서는 본질적으로 군사행동은 지속적인 상승작용의 본성을 가진다.⁶⁷⁾(T14-T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정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현실전쟁은 공격과 방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어와 공격이 서로 다른 종류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 ‘양극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T16)⁶⁸⁾ “공격에 대한 방어에 우위”는 이러한 양극성을 허물고 현실세계에서의 수정적 작용으로서 군사적 정지를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다.(T17) 방어가 공격보다 강하다면 현재는 유리하나 방어의 이점을 배제하고 싸우기에 약한 측으로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유리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군사적 정지가 발생한다. 즉

65) Clausewitz, *On War*, p.84.

66) Clausewitz, *On War*, p.84.

67) Clausewitz, *On War*, pp.82-83.

68) Clausewitz, *On War*, p.84.

행동의 동기가 낮으면 공격과 방어의 강도차이로 인해 중화가 되며 이것이 곧 군사적 정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군사적 정지의 두 번째 요인은 불완전한 상황과악에 기인한다. 인간의 본성상 적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함으로 인해 완화작용이 이루어진다(T18) 이 설명은 ‘마찰(friction)’의 전쟁에 대한 제한적 작용을 군사적 차원에서 다시 재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현실전쟁에 대한 소결론: 우연과 정치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

- T19. 군사적 행동의 빈번한 정지는 전쟁이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확률 계산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Der haeufige Stillstand im kriegerischen Akt entfernen den Krieg noch mehr vom Absoluten, macht ihn noch mehr zum Wahrscheinlichkeitskalkuel)
- T20. 전쟁을 도발로 만들려면 우연이 필요하다. 전쟁과 우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Es felht also nur noch der Zufall, um ihn zum Spiel zu machen, und dessen entbehrt er am wenigsten)
- T21. 전쟁은 본질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도발이다.(Wie durch seine objektive Natur, so wird der Krieg auch durch die subjektvie zum Spiel)
- T22. 이러한 것은 인간의 정신과 가장 부합한다(Wie dies dem menschlichen Geiste im allgemeinen am meisten zusagt)
- T23. 그러나 전쟁이 중대한 목적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다.(전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Aber der Krieg bleibt doch immer ein ernsthaftes Mittel fuer einen ernsthaften Zweck. Naehere Bestimmungen desselben)
- T24.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불과하다(Der Krieg ist eine blosse Fortsetzung der Politik mit anderen Mitteln)
- T25. 전쟁의 다양한 유형(Verschiedenartigkeit der Kriege)
- T26. 모든 전쟁은 정치적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Sie koennen alle als politische Handlungen betrachtet werden.)
- T27. 전쟁사에 대한 이해와 전쟁이론의 기초와 관련하여 이상의 관점이 낳은 결과(Folgen dieser Ansicht fuer das Verstaendnis der Kriegsgeschichte und fuer die Grundlagen der Theorie)

T19-T20은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전쟁의 무제한성이 현실세계에서 완화되고 정지에 이르는 경로와 이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결론 부분이다. T19-T22는 현실전쟁의 본질을 ‘우연’이라는 전쟁

고유의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T23-T27은 ‘정치’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T19-T22은 현실전쟁이 절대적 폭력성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를 ‘마찰’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자체의 속성을 ‘확률계산’, ‘도박’, ‘우연’, ‘인간의 정신’과 동일시하면서 관념전쟁이 현실전쟁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설명하였다. 1편 7장 ‘마찰(friction)’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클라우제비츠는 모든 전쟁에서 발생하는 마찰이야말로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라고 역설하였다.⁶⁹⁾ 이 때문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간단하나 간단한 것이 어렵다. 이 어려움이 누적되고 마찰을 유발하면 전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유발 한다”라고 강조하였다.⁷⁰⁾ 또한 ‘마찰은 종이위의 전쟁(war on the paper)’으로부터 현실전쟁(real war)을 가르는 유일한 개념’이라고 한 것은,⁷¹⁾ 폭력의 극단적 작용을 ‘마찰’이라는 요소가 제한을 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하겠다.

T23-T27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명제와 ‘현실전쟁’의 관계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여기서 현실전쟁을 대표하는 정치적 영향은 전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고찰이 특정한 인물과 상황에 기초한 일종의 확률계산과정이라면 원천적인 동기인 정치적 목적은 이 계산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적에게 요구하는 희생이 적을수록, 우리에게 저항하는 적의 노력도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⁷²⁾

69) Clausewitz, *On War*, p.119.

70) Clausewitz, *On War*, p.119.

71) Clausewitz, *On War*, p.119.

72) Clausewitz, *vom Kriege*, p.98.

그러나 우리는 ‘전쟁’과 ‘정치’의 기능적 관계성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발언을 주목해야한다.

“전쟁은 정치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도구이고 정치적 교류의 연속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적 교류의 실행이다. 다만 전쟁이 지닌 고유특성들은 전쟁수단의 고유한 본성과 연관되어 있을 뿐이다. …전쟁의 동기가 크고 강하며 그것이 교전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쟁이전의 긴장이 폭력적일수록, 전쟁은 그 자체의 추상적 형상에 더욱 가까워진다.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유형의 전쟁이 있는 반면, 정치가 확연하게 전면에 나타나는 유형의 전쟁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양자 모두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⁷³⁾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발언은 이전과는 상반된 주장인데,⁷⁴⁾ 이것은 독일어 ‘Politik’이라는 개념 속에 내재된 두 가지 의미인 ‘정치(politics)’와 ‘정책(policy)’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스포드(Christopher Bassford)가 지적했듯이 전쟁은 ‘정치’와 ‘정책’의 또 다른 표현이다. 여기서 정치는 분쟁세력의 상호작용이지 어느 일방의 ‘정책’ 집행이 아니다.⁷⁵⁾ 정치는 한 국가 또는 사회의 의지 및 의사형성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책은 구체적인 영역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외교정책, 안보정책, 국방정책과 같은 실질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해당된다.⁷⁶⁾ 전쟁 목적의 결정과정에서 정치엘리트들 이외에도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 국민적 정서가 적대감과 적대의도 등과 같은 ‘맹목적 본능(blinder Naturtrieb)’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전쟁의 목적은 정책보다는 ‘정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의

73) Clausewitz, *vom Kriege*, pp.107-109.

74) Herberg-Rothe, *Das Raetschel Clausewitz*, p.168.

75) Christopher Bassford, *Clausewitz and his works*, in <http://www.clausewitz.com/>, p.17.

76) Helmut Koenig, *Orientierung Politikwissenschaft: Was Sie kann und was sie will*(Hamburg, 1999), p.55.

이해표명은 모든 영역의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한 사회의 여론이 ‘감정’적이거나 긴장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전쟁의 정치적 목적 전환을 유발하게 되고 전쟁의 ‘제한’에서 이탈하여 ‘무제한’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적의 타도’라는 목표가 전쟁 수행에서 지배적인 원칙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⁷⁷⁾ 이 때문에 클라우제비츠는 정치목적이 전체적인 입법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쟁수단이 때로는 정치에 순응해야 하지만 전쟁 수단으로 인해 정치적 목적이 변화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⁷⁸⁾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자신의 근원적인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의 명제와 상충되는 것 처럼 보이는 이 주장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진정한 의도는 정치의 국민 의지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치는 전쟁의 목적을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에 적절한 목표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어적’인 기능을 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주안이 있다.⁷⁹⁾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전쟁이 지닌 고유특성들은 전쟁수단의 고유한 본성과 연관되어 있을 뿐 전쟁의 목적은 정치의도에 의해 규정되며, 정치수단으로서 전쟁은 생각할 수 있어도 목적 없는 수단은 생각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유형을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유형의 전쟁’과 ‘정치가 확연하게 전면에 나타나는 유형의 전쟁’으로 대별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모든 전쟁은 정치적 행동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⁸⁰⁾

77) Uwe Hartmann, *Carl von Clausewitz and the Making of Modern Strategy* (Potsdam, 2002), p.39.

78) Clausewitz, *On War*, pp.87-88

79) Schwar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bei Carl von Clausewitz*, p.15.

80) Clausewitz, *On War*, pp.87-88

라. ‘카멜레온’으로서의 전쟁개념과 ‘경이로운 삼위일체’

T28. 이론을 위한 결론(*Resultat fuer die Theorie*)

전쟁론 전체에 대한 분석의 틀로서 1편 1장에 일관된 관점을 담고자할 때 클라우제비츠의 근본적인 고민은 초기 클라우제비츠와 후기 클라우제비츠로 대표되는 세 가지 상반된 논점을 어떻게 하나의 관점으로 수렴해나가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세 가지 논점이란 “전쟁수행의 폭력·강도·목표의 극단적 발휘 對 전쟁 수행간 군사적 정지”, “군사우위 對 정치우위”, “공격 우위 對 방어 우위”를 말하는 것이었다.⁸¹⁾ 그것은 각각 “예나 전역(1806) 對 워털루 전역(1815)”의 상반된 전쟁의 본질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대비논점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서두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예나 전역(1806) 對 워털루 전역(1815)”의 대비 논점을 “절대전쟁 對 현실전쟁”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폭력의 극단성이 표출되는 절대전쟁과 폭력의 완화와 정지가 이루어지는 현실전쟁의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을 구분하면서 이러한 전쟁의 이중적 속성을 어떻게 하나의 이론으로 집대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방안을 클라우제비츠는 ‘이론을 위한 결론(T.28)’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쟁은 카멜레온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전쟁은 상황마다 그 본질을 약간씩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은 경이로운 삼위일체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 전쟁을 지배하는 성향과 관련된 전체 현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전쟁은 그 구성요소인 적대감정과 적대의도에서 연원된 원초적 폭력성을 갖는다. 이 폭력성은 맹목적인 본능과

81) Herberg-Rothe, *Das Raetsel Clausewitz: Politische Theorie des Krieges im Widerstreit.*

같다. 둘째, 전쟁은 전쟁을 자유로운 정신 활동으로 만드는 확률과 우연의 게임이다. 셋째, 전쟁은 정치적 도구로서 정치에 종속된 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쟁은 순수한 이성의 영역에도 귀속되어 있다. 전쟁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첫 번째 측면은 국민, 두 번째 측면은 야전사령관과 군대, 세 번째 측면은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다. 전쟁에서 타 올라야 할 열정은 국민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 용기와 재능의 확률과 우연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범위는 야전사령관과 군대의 고유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은 정부의 독자적인 몫이다.”⁸²⁾

이 처럼 전쟁에 내재된 전쟁의 이중적 경향 때문에 전쟁에 대한 단일한 정의가 클라우제비츠에게 어려운 과제였음을 암시한다. 그는 1편-8편까지의 전쟁분석을 통해 초기 클라우제비츠와 후기 클라우제비츠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화가 필요했다. 전쟁의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이라는 상반된 속성을 하나의 분석틀로 설명해야 하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개별 상황마다 본질을 약간씩 변화시키는 ‘카멜레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카멜레온적 속성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클라우제비츠는 ‘경이로운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였고, 여기에는 ‘적대감정과 의도(감성)-자유로운 정신활동-이성’이라는 요소가 포함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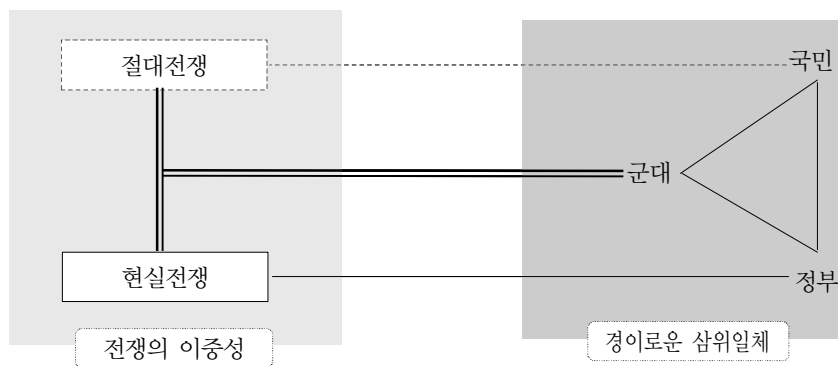
〈표 4〉 경이로운 삼위일체와 전쟁의 경향성

삼위일체의 요소	전쟁의 경향성	행위자
적대감정 / 적대의도(감성)	원초적 폭력성	국민
자유로운 정신활동	우연/개연성	군대/지휘관
이성	정치적 수단	정부

출처 : Yoriko Rach, “Clausewitz Revisited”, in Lennart Louchen, ed., *Konflikte und Strategien II, Clausewitz-Information. 2/2010*(Hamburg : Fue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2010), p.17.

82) 류제승, 앞의 책, p.58.; Clausewitz, *vom Kriege*, pp.110~111.

여기서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조합에 따라 전쟁은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이라는 양측사이에서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며, 정확한 위치는 모든 각각의 전쟁목적에 미치는 영향요소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⁸³⁾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관념전쟁과 현실전쟁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전쟁은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러한 가변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서 “감성-이성-우연”이라는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식별하였고 이를 “국민-정부-군대”의 속성과 연계하여 전쟁의 본질을 ‘카멜레온’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전쟁의 이중성과 경이로운 삼위일체

4. 결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세상에 빛을 본지 올해로 183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전쟁론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83) Hartmann, *Carl von Clausewitz and the Making of Modern Strategy*, p.36.

회자되었다. 특히 전쟁론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해석상의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세기 초 독일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전략논쟁’이었다. 델브뤽(Hans Delbreuck)과 독일군 참모부와의 전략논쟁에서 독일군 수뇌부는 클라우제비츠를 ‘섬멸전쟁’의 선구자로 인식한 반면 델브뤽은 클라우제비츠의 두 가지 전쟁전략을 섬멸전략(Niederwerfungstrategie)과 소모전략(Ermattungstrategie)으로 소개하면서도 클라우제비츠를 섬멸전략의 창시자로 보지 않았다.⁸⁴⁾ 최근 키건(John Keegan)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이 20세기의 ‘총력전(totaler Krieg)’의 시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⁸⁵⁾

최근에도 전쟁의 본질과 전략과의 관계에 대해서 유사한 논쟁을 노정하고 있다. 순수 군사주의자(militarist), 정치적 현실주의자(political realism)의 정치와 군사 우위논쟁이 그것이다.⁸⁶⁾ 순수 군사주의자들의 관점은 전쟁이 비록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개시된다 하더라도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은 ‘정치적 목표’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순전히 군사적 고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을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쟁수행은 순전히 정치적 통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⁷⁾ 순수군사주의자들은 정치우위의 원칙이 전쟁에서 경험적으로 항상 도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현대에 와서도 핵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사례에서 정치의 연속으로서 전쟁의 관점은 유효하고 그 본질적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84) Sven Lange, *Hans Delbrück und der Strategiestreit: Kriegführung und Kriegsgeschichte in der Kontroverse 1879-1914* (Freiburg im Breisgau, 1995).

85) John Keegan, *Die Kultur des Krieges* (Reinbek, 1997).

86)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3), p.60.

87) Lider,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 p.64.

여기서 우리는 왜 전쟁론의 1편 1장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비단 역사적으로 진행 중인 클라우제비츠에 관한 논쟁을 이해하고 전쟁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쟁의 본질에 대한 보다 본원적이고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쟁론은 전쟁과 전략에 대한 변함없는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전쟁론이 단순한 전승의 비결을 캐내는 ‘교범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의 동학을 고찰한 전쟁이론으로 승화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클라우제비츠가 20여 년간의 전쟁 연구를 총화하면서 던진 전쟁 분석에 대한 궁극적인 연구대상은 ‘전쟁의 강도’, 즉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의 논리에 관한 것이었다. 전쟁은 왜 극단적으로 고조 → 완화 → 정지의 과정을 거치며 그 요인은 무엇인가?가 핵심 질문이었다. 그리고 두 개 유형의 상반된 속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나가는 과정은 ‘관념’과 ‘현실’이라는 상반된 영역의 가치를 결부시키며 ‘양자 간 결투’라는 개인적 수준의 전쟁개념을 ‘국가 간 전쟁’으로 확대하고, ‘관념전쟁’과 ‘현실전쟁’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밝혀내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이러한 고민을 집대성한 1편 1장은 나폴레옹 전쟁의 성공과 실패 동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을 관점으로 개념화한 이론적 고찰이다. 1편 1장은 예나 / 아우어슈테트(1806), 모스크바(1812), 워털루(1815) 등 세 전역 사례를 전쟁분석의 주요 모티브로 하여 전쟁론 전체에 대한 전쟁의 본질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이 중에서 예나 / 아우어슈테트 전역이 절대전쟁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면 모스크바원정과 워털루 전투의 실패는 현실전쟁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되었다. 예나 전역을 초기 클라우제비츠라고 한다면 모스크바 /

워털루 전역은 후기 클라우제비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유형의 전쟁형태를 하나의 이론으로 수렴하기 위한 결정적 고민이 ‘경이로운 삼위일체’에 녹아나 있다. 1편 1장에서 클라우제비츠는 28개의 소명제를 조합하여 ‘카멜레온’이라고 규정한 전쟁의 이중성과 이성-감성-우연의 삼위일체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핵심논점이었던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의 동학을 입증하였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절대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절대전쟁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절대전쟁이 극단적인 참고점으로서 현실에서는 달성되지 않으며 단지 이론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한편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의 동학은 전략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예나, 모스크바, 워털루 전역 등 세 개의 전쟁 형태가 모든 것을 말해주듯이 전쟁과 전략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집필의 근본적인 동기는 “왜 나폴레옹은 전쟁에 성공하고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에 있었다. 전략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쟁의 본질에 대한 본원적 고찰이 필요했던 것뿐이다. 이 때문에 클라우제비츠도 전쟁론 구성에서 1편은 전쟁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중은 전략문제와 전쟁계획에 대한 논의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못했지만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의 유일하게 완성했다고 말한 1편 1장의 ‘전쟁의 무제한성과 제한성’의 역학이 전략문제와 어떤 연계를 가지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전쟁론에 대한 후속 연구는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쟁과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말대로 “선입견 없이 진리와 신념을 갈망하는 독자”의 심정으로 “불완전한 형태의 사유의 모음집”인 1편-6편을 해독함으로써 전쟁이론을 추구하고 “개별 금속입자들 대신에

하나의 전체를 잡티 없는 순금속으로 주조하듯이 완전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전쟁론 연구자들의 과업이 되어야 한다. 그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편 1장이다. 우리가 1편 1장을 정확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고투고일: 2015.4.1, 심사수정일: 2015.5.20,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전쟁론 1편 1장, 전쟁의 제한성과 무제한성, 나폴레옹 전쟁, 예나 / 모스크바 / 워털루 전역, 절대전쟁, 현실전쟁, 경이로운 삼위일체, 이성, 우연, 감성, 카멜레온

<ABSTRACT>

How to understand Book I. Chapter 1 of On War(written by Carl von Clausewitz)? : ‘Escalation(Entgrenzung)’ and ‘De-escalation(Begrenzung)’ of the war

Kim, Tae-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logical structure of ‘nature of war’ in the Book I, Chapter 1 of On War written by Carl von Clausewitz, as an introduction for beginners who are going to study On War. This article does not try to take a critical approach about the previous literature, but try to give a contribution to help readers to understand this great book just more clearly and easily. As a result this article is trying to provide a profound basis for interpretation about the ‘nature of war’ on a deeper and reliable basis.

This study follows two different approaches. First, this article was built on a interaction between a empirical ‘history’ and a conceptual ‘theory’. On war is a classic literature about political science and military art and science whose main empirical case was about conducting of Napoleonic Wars in the 19th century. Accordingly, we need to analyze three main campaigns in the Napoleonic Wars in order to answer key questions raised in this book. In this background, I will introduce ‘three campaigns’ and ‘two different types of war’ conceptualized by the German scholar Andreas Herberg-rothe. Three campaigns include Jena/Auerstedt (1806), Moscow(1812), Waterloo(1815) and two types of war are consisted of a ‘absolute war(Entgrenzung der Gewalt)’ and ‘real war(Begrenzung der Gewalt)’.

Second, this article needs a closer look at a new architecture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hole’ and ‘the part’ of On War which was proposed by Carl von Clausewitz himself. The author intended to provide a simple and systematic logic about the nature of war. He does not want to bring readers a confusion by letting various pieces of elements belonged to war untouched or unorganized one. This means, Clausewitz’s efforts to analyze the campaigns from part to part needed to be integrated into a single work or a ‘one final product’ under the framework with ‘one perspective’ or ‘one single point of view’. The different perspective and changing character on three campaigns are kinds like a confused mixture, because this was published as a unfinished literature after Clausewitz died. Therefore, we have to study the whole publication process during twenty years. Finally, this study comes to a conclusion that Book I Chapter 1 of is a framework for the following whole part of On War.

The main theme Clausewitz raised during twenty years was the dynamics of escalation and de-escalation of war(‘entgrenzung’ and ‘begrenzung’). Clausewitz intended to clarify why war comes to an escalation → mitigation → de-escalation → suspension.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book to illuminate the cause of this question was the dialectical approach using the opposite concept of ‘ideal world and real world’, ‘duel and state war’, ‘absolute war and real war’.

Book I Chapter 1 of On War i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whole book which provides a consistent perspective on the success and failure of Napoleon’s conduct of war in the empirical cases. Jena/Auerstedt(1806) campaign was a empirical prototype for a absolute war, but Napoleon’s failure in Moscow(1812) and Waterloo(1815) campaigns motivated Clausewitz to turn his early thought on nature of war to the real war paradigm. ‘Absolute war-paradigm’ of the Jena(1806) is ‘early Clausewitz’ and ‘real war-paradigm’ of the moscow/waterloo(1812/1815) is ‘later

Clausewitz'. Clausewitz tried to integrate this different and opposite nature of two types of war into a single war theory based on a 'wondrous trinity of war'. Clausewitz tried to clarify the dynamics of escalation and de-escalation of the war, and the relationship 'wondrous trinity'(primordial violence – chance and probability – reason alone) and 'dual nature of war(chameleon)'. According to Clausewitz, it does not exist a absolute war in the real world. The reason why Clausewitz provide a absolute war in the book was just to show a reference point for setting a theory, which never takes place in the reality.

Lastly, this article implies that the nature of war(book I. chapter 1 of on war) is closely associated with a matter of military strategy. As explained clearly in the empirical cases of Jena, Moscow and Waterloo, 'war and strategy' cannot be separated. The most cause/motive of Clausewitz was "why Napoleon won or lost the war?". Clausewitz dealt with the nature of war in the first chapter of his book just to answer his main question in the later part. Clausewitz' main interest was actually focused on a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following parts of his book.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to read Book I Chapter 1 of On War carefully before we start to study 'strategy'.

Key words : Book I Chapter 1 of *On War*, Escalation and De-escalation of War, Napoleonic War, Jena/ Moscow/ Waterloo, Absolute War, Real War, Wonderous Trinity, primordial violence, chance and probability, reason alone, Chameleon